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형의 혁명조직인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9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혁명적 명도인 《C.C》에서 맞을 올린 주체혁명위업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치관이 더욱 높게 자리잡고 있는 혁명의 시대에 온 나라 천만군민은 조선혁명의 시인이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역사적주체로 되는 라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세형의 권위조직인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것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건이었으며 《C.C》가 열어놓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원리를 따라 우리 혁명은 장구한 90성상 주체의 혈통, 일심단결의 전통을 뜻깊게 이어가며 승승장구하고있다.

혁사의 날을 맞으며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불멸한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고 빛내여 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C.C》에서 시작된 주체의 당건설과 백두의 대업을 전면적으로 계승완성해 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형의 혁명조직인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9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조선혁명의 개척자, 명도자이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과

《C.C》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여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제시하시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불패의 위력을 단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감사의 정으로 끓어넘치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록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정전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대 기관, 공청, 기업소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혁명렬사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최봉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명수동지, 양형철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건동지, 박법기동지, 김영철동지, 김원홍동지, 리용호동지, 조연준동지, 노광철동지와

이 결려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 이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평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정전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대 기관, 공청, 기업소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혁명렬사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최봉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명수동지, 양형철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건동지, 박법기동지, 김영철동지, 김원홍동지, 리용호동지, 조연준동지, 노광철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주석 단에 나앉았다.

《김일성공군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가 보고 《영광스러운 《C.C》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를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영광스러운 《C.C》의 가치높이 조선혁명과 인류사주위업을 승리의 함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원불멸한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으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무려에 필통같이 공적 《C.C》의 전통과 위업을 고수하는 길에 백전백승의 진로와 완만한 미래가 있다는 확리를 다시금 깊이 체득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구상하시고 단련기틀을 마련하여 주신 강대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감으로써 《C.C》의 리념을 더욱 활짝 꽃피워갈 참가자들의 역적불변의 신념과 드높은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높이 들자 붉은기》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동군 삼등리를 현지도하신 70돐 기념 보고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동군 삼등리를 현지도하신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농장들의 전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열세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에 휩싸여있다고 말했다.

해방후 첫 무선전거와 더불어 온 나라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인민의 대표로 높이 추대한 령사의 땅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근로인민의 대표로 추대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35(1946)년 10월 16일 강동군 삼등면(당시)을 찾으신어 선거자들앞에서 첫 무선전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할데 대한 령사적인 언설을 하시였으며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방도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고 말했다.

주제 36(1947)년 11월 또다시 삼등면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위원회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도 밝혀 주시고 모든 근로자들이 새 조국건설에 높은 열성을 가지고 참가하며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발돋움하시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자욱은 삼등리에도 령리히 새겨져있다고 말했다.

주제 39(1950)년 1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삼등리를 찾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길에서 령사의 전통을 뜻깊게 회고하시면서 삼등면에 깃들여있는 수령님의 명도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가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며 인민을 위해 항쟁성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요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은정속에 삼등리는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다고 그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현수님의 정력적인 명도에 의하여 농장이 지난 70년간 자랑스러운 전변의 새

려사를 펼쳐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신세만세 높이 모시며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경시관철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울려농사생산과적으로 경속하며 북구피해 복구전선에 더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어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삼등혁명사적관의 일군들과 강사, 종업원들이 현지 지도사적비와 혁명사적물들에 대한 보존관리와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영광의 땅에 깃들여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업적을 높이 빛내이며 우리 당의 사회주의 및사회주의상을 알리는데 발돋움하는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동맹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령사적인 김일성사적비정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언설에서 청년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합에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이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동맹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입니다.》

오늘 청년동맹앞에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투쟁에서 당의 적수대, 이속부대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떨칠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할 무조건적 요구에 임해야 한다.

청년동맹이 시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합이어야 한다. 청년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합이어야 하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점으로 하여 주체의 청년운동을 승려적으로 전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합,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당, 군, 정에 관한 사상을 구현하여 전당, 전군, 정당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합과 함께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합을 우리 혁명대오의 위력을 비강하게 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기라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철칙의 의지가 새겨져있다.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합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은 오늘 경애하는 현수님의 평도따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치높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침로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의 평도따라 전진적위력을 전백배로 높이이고 평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있으며 전당과 온 사회가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수행에 힘있게 벌리고있다.

혁명적사상공세의 열풍속에 5대요양이 끊임없이 심화되어 전만민이 우리 당의 공화국은 공격적인 혁명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계속 높이 새긴 사상과 신념의 장사들로써 지펴나가고있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이 이룩되고 우리 조국이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세상에 묻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위용되고있는것이 오늘의 자랑한 현실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치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혁명은 오늘 당과 군대와 함께 청년동맹을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앙양에서 실현해나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청년동맹으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승하에서 강화발전되여온 주체의 조선청년운동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자기주체적인 투쟁을 펼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당중앙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려는 철칙의 의지가 500만 청년들의 심장속에 새겨져 맥동되고있다. 특히 청년들을 우리 당의 마음의 기둥, 역력의 지지점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새겨

안고 백두정봉들이 새인을 날래우는 영웅청년선진화, 시대를 대표하는 백두산 영웅청년정신을 상징한것은 조선청년운동사에서 특기할 사변이며 이것은 주체의 청년운동의 앞길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 주고있다.

당의 평도따라 우리 혁명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합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령사적전환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들어서고 청년들이 총진군대오의 전열에서 물과파를 열어제끼고있는 장엄한 현실은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합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청년동맹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치높이 높고나갈 때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따라 전진해오는 우리 혁명과 주체의 청년운동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우리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이 빛나게 성취되게 될것이다.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합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동맹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꽃피워 빛내이며 당의 평도따라 이 땅우에 인민의 막힌, 전하세일강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 당은 이 투쟁에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인 청년들이 앙양에 실것을 바라보고있다.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고 승고한 념원이 어려있는 혁명의 불꽃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합에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꼭꼭내달리며 김일성, 김정일청년강국의 존엄과 위력을 온 우리에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김 용 일

리론, 방법의 절실적인 체제이며 현실과 인민의 미래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합 실현해나가는 인민의 길이,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휘황히 밝히는 불멸의 가치로,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향도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우리의 청년강국건설목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어 온 성스러운 령사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치높이 높고나갈 때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따라 전진해오는 우리 혁명과 주체의 청년운동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우리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이 빛나게 성취되게 될것이다.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합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동맹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꽃피워 빛내이며 당의 평도따라 이 땅우에 인민의 막힌, 전하세일강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 당은 이 투쟁에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인 청년들이 앙양에 실것을 바라보고있다.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고 승고한 념원이 어려있는 혁명의 불꽃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합에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꼭꼭내달리며 김일성, 김정일청년강국의 존엄과 위력을 온 우리에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으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무려에 필통같이 공적 《C.C》의 전통과 위업을 고수하는 길에 백전백승의 진로와 완만한 미래가 있다는 확리를 다시금 깊이 체득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구상하시고 단련기틀을 마련하여 주신 강대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감으로써 《C.C》의 리념을 더욱 활짝 꽃피워갈 참가자들의 역적불변의 신념과 드높은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높이 들자 붉은기》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